



‘불교와 교육문화’ 발간
 녹원 동국대 이사장이 연설 어록 <불교와 교육문화>(학 교법인 동국학원)를 펴냈다. 1995년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사를 비롯해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연설, 법문, 식사, 논설 등을 한데 모은 것. 불교정신과 대학교육의 이념, 세계화 시대의 동국정신과 불교의 역할, 동국학원 신하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의 좌표 등 총 6부로 구성됐다.

가야불교유적 순례
 영조 광주불교교육원장은 26일 오전 8시 ‘가야불교유적을 찾아서’ 주제의 성지순례를 떠났다. 062228-9098

명예철학박사 학위받아
 해운 약불사 주지는 4월 26일 태국 마하출라롱콘 대학에서 스리랑카위디어대학 명예불교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원광 부산 정수사 주지는 1일 부산일보사 김상훈 사장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 원 을 전달했다.

“법회에 생기 고취”
 S-에 불자회 오세길 회장

“많은 회원은 아니지만 불자회 활동을 통해 바쁘고 고된 직장생활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4월 27일 울산 정토사에서 창립된 S-에 불자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오세길(54·업무 본부 부본부장·사진) 회장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S-에 불자회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용안사 포교원에 모여 불자회 창립을 발원 한 후 매주 수요일 교리 공부와 기도 정진을 이어왔다. 젊은 불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기는 법회를 만들겠다는 오 회장은 “울산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계열사 삼성정밀화학과 카프로라담 불자회와 매일 한차례씩 공동법회를 열어 유대를 강화하고, 울산지역 신협단체들과의 교류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봉영 기자

화족 본사 편집부 김현실 씨는 25일 오후 1시 경기도 안양문화센터웨딩홀 1층에서 김장중 씨와 화족을 밝혔다.

“환경·복지문제 불교계와 긴밀 협조”

청와대 불자회 7대 회장 김상남 복지노동 수석

“환경,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불교계와 정부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잘 조정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일 조계사에서 청와대불자회 제7대 회장에 취임한 김상남(57·사진) 복지노동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불자회의 제도 약을 다짐하며 이같이 포부를 피력했다. 특히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 불교계 발전을 위해 청와대불자회의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올해 1월 복지노동수석에 임명된 김 회장은 “청와대 근무 특성에 따라 정기법회를 열지 못해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안타깝다”며 “분기별 수련회 개최와 정기법회 개최 등 불자회 단합을 위해 적극적인 실행활동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모임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불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69년 광주 보덕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김 회장은 82년 아내 송연숙 여사의 권유로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무진장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아 불교에 귀의했다. 이때 12 번에 걸쳐 진행된 무진장스님의 법문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을



정도다. 이후 김 회장은 아내와 함께 사찰 수련회와 성지순례 등을 하며 믿음을 키웠다. 현재 쓰고 있는 ‘우화(雨華)’라는 법명도 순천 송광사에서 묵언수행으로 진행됐던 수련회에 참가해 받은 법명이다. 일곱 번이나 계를 받음 활발한 실행활동을 펼친 김 회장은 요즘도 토요일마다 관악산 연주암을 찾아가 108배를 한다. 김 회장은 “늘 부처님 법을 생각하며 부처님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며 “이러한 인연으로 청와대 불자회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가정은 불교 집안이다. 아내 송 여사의 불심이 돈독해 김 회장과 두 딸 민정, 유정 씨도 모두 불교에 귀의시켰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니며 불교를 믿었다는 송 여사는 조계사에서 수도한 불자로 잘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의 오랜 믿음도 부인 송 여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김상남 회장은 “그동안 뛰어난 실행활동의 경험과 사부대중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청와대 불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a.com



정대스님, 한화갑 민주당 대표 접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8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예방을 받고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노사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정차권이 화합할 경우 종교계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대 스님과 한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국대학교 개교 96돌 기념식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개교 96주년(8일)을 맞아 7일 대학 예술극장에서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동국대는 이날 훈순식(서울 국악 예술고교장), 장오현(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이근영(미국 아리조나 동문회장), 김경재(미국 LA 동문회장) 씨 등 네 명을 ‘자랑스런 동국인’으로 선정해 동국대 휘장 ‘은장’을 수여했다. 송석규 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미황사 소년소녀가장 초청 ‘들차회’

전남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5일 사흘내 부모전에서 광주지역 소년소녀 가장 47명을 초청, 들차회를 가졌다. 광주 열린기독교 복지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금강 스님은 “어렵고 힘든 생활에 좌절하지 말고, 은은한 들차의 향기처럼 열심히 살아달라”고 말했다. 금강스님이 미황사 부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원 무차연등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택)는 10일 서울 종로시민공장에서 ‘제4회 무차연등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가한 이날 연등회에서는 노인 및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실랑민, 북한 이탈주민 등 400여명에게 무료로 연등을 달아주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무차연등을 달고 있다.

“봉사하는 교수불자회 만들터”

부산 불교교수연 6대 회장 김용태 교수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연합회의 재정립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 것. 79년 11월 창립된 불교교수연합회는 부산대, 경성대, 부경대, 신라대, 동부산대학 등 부산의 4년제와 2년제 불자교수 7백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인원에 비해 대학별 자체법회외의 특별한 활동은 중단되어 있었다.

전문인력 이점 활용 작은것부터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교수불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발휘해 불교의 가르침을 펴는데 적극 동참할 각오입니다.” 16일 코모도호텔 중무홀에서 부산불교교수연합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용태(63·前 신라대 총장·사진) 회장의 말이다. 부산불교교수연합회는 이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초청,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주제로 시민초청 대강연회를 함께 연다. 이날 법회는 사실상 한동안

김회장은 “한동안 침체되었던 교수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 성지순례, 분기별 자체 수련회, 연합법회 등으로 회원들의 신심 증진과 보살행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문분야, 자연과학, 정보 IT분야 등 전문 인력이 많은 강점을 최대한 활용, 각분야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것. 또한 마음의 안정과 지혜로움의 삶을 해설하도록 도와주는 상담 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방안도 모색중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부산 교통질서 운불련이 맡겠다”

선진문화교통질서 봉사단 조홍인 단장



의식은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결과”라는 조희장은 “질서는 생활속에 녹아든 습관이므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별로 차선지키기 등 캠페인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도시인 부산의 교통질서의식을 높히는데 한국운불련 부산지역회 전 회원이 봉사하겠습니다.” 26일 부산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에서 발대식을 갖는 선진문화교통질서봉사단 단장 조홍인(50·한국운불련 부산지역회·사진) 회장의 마음은 바쁘지만 하다. 국제경기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부산시민들의 질서 의식은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보행자보다 운전자들의 위반이 많이 눈에 띈다”는 조희장은 몇 년 전에 비해 보행자들의 질서

부산=천미희 기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여름반)
2. 교육장소	동산 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2년 6월 5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학금	30,000원 (반영합관 사진 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간(肝) 이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달머리와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더럽힌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약 97마리를 덮은 뒤 약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약 7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탄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에서 살아 가고 있으며 은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협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할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안락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봉나루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토로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